



지난해 열린 고창 오거리 당산제.

“풍요로운 한 해 되게 해주세요”

고창 곳곳 정월대보름행사로 들쭉

오는 19일은 정월대보름이다. 우리 조상들에게 설날과 추석, 단오, 한식과 함께 5대 명절에 속한다.

그 중에서 정월 대보름은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날로 보름달을 향해 한 해의 안녕과 풍년을 비는 풍습이 있다. 한반도 첫 수도 고창에서도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진다.

먼저, 고창읍 당촌마을(전봉준 장군 생가 앞)에선 16일 고창읍성 팜팜스테이션이 주최하는 '정월대보름 축제-달님에게 말해봐'가

열린다. 투호, 제기차기, 쥐불놀이 등이 펼쳐지고, 달집태우기 등 볼거리도 풍성하다. 먹거리도 빼놓을 수 없다. 인절미, 군고구마, 오곡소원주먹밥이 쌀쌀한 날씨에 허기를 달랜다.

18일에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제38회 오거리 당산제'가 열린다. 오거리당산은 고창읍정중앙에 세워진 3.8m의 돌기둥으로, 미륵신앙과 마을을 수호하는 상징물로 여겨진다. 이날 오후 6시부터 당산제를 지내고 연등놀이, 줄타기, 줄다리기, 달집소망놀이, 당산옷 입히기가 진행된다. 축제 참여자들은 활활 타오르는 달집을 보며 강강술래(대동놀이)를 이어간다. 당산 주변에서는 율놀이, 투호놀이,

제기차기, 널뛰기 등 민속놀이도 예정돼 있다.

고창농악보존회는 17일부터 20일까지(3박4일) 전수관에서 고창농악 대보름군 체험 행사도 연다. 전국 각지의 대학가 풍물패부터 노인대학 농악단까지 한데 모여 고창지역 여러 마을의 마을굿을 체험해보고 보름날에는 대보름굿을 펼칠 계획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정월대보름은 예로부터 설 만큼이나 큰 명절로 여겨져 왔다"면서 "우리의 전통풍습을 배우고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는 한반도 첫수도 정월대보름 행사에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박서영 유고시 55편 담긴 '착한 사람이 된다는 건 무섭다' 출간

1995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한 박서영(1968~2018)의 유고시집 '착한 사람이 된다는 건 무섭다'가 출간됐다. 시 55편이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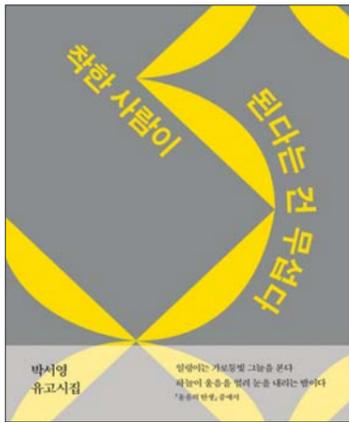
'저것은 몸에서 울음 다 발라내고/ 은행나무 금관을 쓴 채 발견된 사랑의 배후/ 속이 텅 빈 황금빛 껍데기 속에 누가 손을 넣어 보았나/ 인간됨으로 나무통치에 붙어 있는 사랑의 배후들// 땅바닥에 떨어져 배 뒤집고 죽어 있는 건/ 다 울고 자신을 버린 매미/ 얼마나 한스럽게 울다 생을 건너갔는지/ 죽어서까지 짓밟힐까 싶어/ 나무뿌리 쪽으로 슬며시 옮겨 주었다'(천 년 은행나무 슬하에서 중)

박 시인은 "풍물원 문을 닫을 시간이야"라

며 "흘러가는 모래밭에 두 발을 묻은 토끼가/ 갑자기 일어서서 노을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은다"고 했다.

"두 손을 맞잡은 토끼의 모습이/ 헤어진 인연을 끌어당기듯 따스하고 몽글하다./ 저렇게 작은 짐승이, 저렇게 작은 손으로/ 저렇게 어기는 해를 바라보며// 우정과 사랑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아, 저렇게 희미한 소리로 우는 토끼가/ 신의 침묵을 경청하고 있는 토끼가/ 낮은 울타리를 넘어/ 수천 번은 도망갈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좁디좁은 모래밭을 떠난 적 없이/ 멀고도 높은 꿈의 슬픔에 몰입하고 있다" 136쪽, 9000원, 걷는사람

/뉴스시스



'장수가야 정월대보름을 밝히다'

봉수문화제 · 정월대보름 행사 19일 의암공원 일대에서 열려

장수가야 봉수문화제와 정월대보름 행사가 오는 19일 장수군과 전북도립국악원 주최, 장수팔공청년회 주관으로 장수 의암공원 일대에서 성대하게 펼쳐진다.

'장수가야! 정월대보름을 밝히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장수가야역사문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봉수점화식과 풍년을 기원하는 달집태우기, 풍년기원제, 강강술래 등의 프로그램이 국악원 창작단과 무용단, 관현악단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화려하고 풍성하게 펼쳐진다.

식전행사는 풍물놀이, 민속 전통 놀이, 서커스 등이 행사의 막을 열며, 본공연에서는 국악합주 '신밧놀이', '뗏목으로 사는 세상'을 시작으로 '배 띄워라', '신사랑가', 민요 '달맞이가세', '자진육자백이', '개고리타령', '진도아리랑' 등이 공연된다. 무용단의 '그 새벽의 가야'로 본공연은 마무리 된다.

이어지는 가야봉수점화식에서는 가야시대 주요 통수단이었던 봉수를 제작해 당시 점화 모습을 무용 퍼포먼스와 함께 재현해 역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봉수의 종착지인 장수가야의 상징성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정월대보름 행사의 백미인 달집태우기는 생솔가지 등을 엮어 쌓아올린 무더기를 태워낸 풍속을 재현해 달집에 불을 붙여 액운을 없애고 풍년을 기원한다.

장영수 군수는 "이번 행사는 장수가야



의 상징인 봉수를 우리나라 세시풍속 정월대보름에 접목하여 철과 봉수의 왕국 장수가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도립국악원과 팔공청년회와 함께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며 "그 어느 해보다 화려하고 풍성하게 펼쳐질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지속적인 발굴과 학술연구를 통하여 고대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장수가야의 역사 재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군산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개최... 화려한 합창음악의 진수

군산시립합창단이 오는 21일 '마에스트로 정남규와 함께하는 제97회 정기연주회'라는 주제로 다양하고 화려한 합창음악의 진수를 선보인다.

이번 연주회는 요하네스 브람스의 미사곡을 시작으로 에릭스 에센발즈에 의한 3개의 합창곡과 한국 가곡, 미국 대중음악, POP & JAZZ까지 귀에 익숙한 대중음악곡들로 구성됐다.

또 특별게스트 크로스 오버 앙상블 트리는 '자신의 존재를 잇는'다는 뜻으로 신비로운 음악적 색깔로 대중과 소통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의 전당 관계자는 "관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군산시립합창단이 정남규 지휘자의 좋은 곡들을 연주하여 현대 합창음악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초등학교 이상 입장할 수 있으며, 티켓은 금강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하거나 공연당일 1시간 전부터 선착순으로 현장티켓 구입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정기연주회에 초대된 정남규 객원지휘자는 '부드러운 카리스마, 섬세한 지휘법'으로 세련된 합창 음악을 만들어 낸다는 평판을 받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